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_윤선도 전문

1. 춘사(春詞)

앞개에 안키 짓고 된되희 희 비친다

앞 포구에 / 안개 / 겹히고

앞 갯벌에 안개 걷히고 뒷 뚝에 해 비친다.

비떠라 비떠라

배 떠라 배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남물**이 미려 온다

남물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어영차, 어기여차 하는 감탄사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江村(강촌) 온갖 고지 먼 빛치 더욱 **도탄**

츄구나

강촌에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춘(春) 1>

날이 덥도다 물 우희 고깃 **뒸다**

뒸다

날이 덥도다. 물 위에 고기 왔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굴며기 들식 세식 오락 가락 흥고야

갈매기 들씩 셋씩 오락가락 하는구나.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낚대는 쥐여 있다 濁酒(탁주) 瓶(병) **시뒸느냐**

실었느냐

낚시대는 쥐여 있다. 탁주병은 실었느냐?

<춘(春) 2>

東風(동풍)이 건들 부니 물결이 **고이** 난다

곱게 일어났다

동풍이 문득 부니 물결이 고이 인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꽃 달아라 꽃 달아라

東湖(동호)를 도라보며 西湖(서호)로 가자스라

동호를 돌아보고, 서호로 가자구나.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앞 **뒸**히 떠나 가고 된되희 나아온다

상이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다가온다.

<춘(春) 3>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숨가

우는 것이 싸구기가 푸른 것이 버들 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漁村(어촌) 두어 집이 **넋** 속의 나라 들락

연기 속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맑가호 기쁜 소희 온갖 고기 뛰노는다

맑은

맑은 깊은 못에 온갖 고기 뛰는다.

<춘(春) 4>

고운 별터 **찍**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찍이는데

고운 별을 찍었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 두라** 낚시를 **노출**일까

풀어 던져 줄까 놓아 둘까

그물을 던져둘까? 낚시를 놓으리까?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淸潭(탁연기)의 興(흥)이 나니 고기도 니즐노다

곡원의 <어부사>에 있는 노래, '탁연'은 '갯끈을 씻는다'는 뜻임

탁연기의 흥이 나니 고기도 잊었도다.

<춘(春) 5>

夕陽(석양)이 빛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자

석양이 바겼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돋디여라 돋디여라

꽃 지어라 꽃 지어라

岸柳(안류) 汀花(정화)는 고비 고비 **새를**고야

새를구나

바들이며 물결은 굽아굽이 새를구나.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三公(삼공)을 **불리**스나 萬事(만사)를 생각하라

부림겠느냐

정승을 부러워하겠느냐. 세상만사 생각하라.

<춘(春) 6>

芳草(방초)를 **볼**와 보며 난지(蘭芷)도 **뜨**되 보자

맡아

뜯어

꽃과 풀을 바라보며, 난초 영지를 뜯어 보자.

빅세여라 빅세여라

배 세워라 배 세워라

一葉扁舟(일엽 편주)에 시른 거시 무스 짓고

입업편주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갈 제는 너 뿐이요 올 제는 들이로다

갈 때는 나 뿐이요, 올 때는 달이로다.

<춘(春) 7>

醉(취)하야 누인다가 **여**을 아티 누리려다

여

취하여 누웠다가 여를 아래 내려가려다.

빅티여라 빅티여라

배 매어라 배 매어라

落紅(낙홍)이 흩너 오니 **淸潭**(도원)이 갓갑도다

무릉도원

붉은 꽃이 흘러오니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자극총 자극총 어사와

人世 紅塵(인세 홍진)이 **언**매나 7렸느냐

일마나

세상의 타끌이 얼마나 가렸는고?

<춘(春) 8>

낙시줄 거더 노코 **동헌(동창)**의 둘을 보자
배에 잇는 작은 창

낙시줄을 갠어 놓고, 동창의 달을 보자.

달디여라 달디여라

달 지어라 달 지어라

흐릿 밤 들거나 **주거(자규)** 소리 뭉게 난다
두견새, 소쩍새, 철둥새

하마 밤이 들었나? 두견의 소리가 맑게 난다.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나은 **興(흥)**이 **無窮(무궁)**하니 갈 길은 **나젯뎡다**
잇었도다

남은 흥이 무궁하니 갈 길은 잇었도다.

<춘(春) 9>

來日(내일)이 또 업스랴 불람이 **몇 달 새리**

얼마 동안에 새리

내일이 또 없겠는가. 불람을 얼마 만에 새겠는가.

빅브러라 빅브러라

배 불어라 배 불어라

낮대로 막대 삼고 **熊羆(시비)**를 죽자 보자
사립문

낙시대를 막대로 삼고, 사립문을 찾아보자.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漁父 生涯(어부 생애)는 이렇구러 디벌로다

어부의 생애는 이렇게 그렇게 지내도다.

<춘(春) 10>

2. 하사(夏詞)

구근비 **머저 가고** 시냇물이 물아 온다

그쳐 가고

곳은 비는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빅떠라 빅떠라

배 떠라 배 떠라

낮대물 두리메니 가쁜 **興(흥)**을 **兼(겸) 못홀와**
금지 못할 것이로다

낙시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금지 못하겠구나.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楚江 蘇軾(연강 침잠)은 뉘러서 그려넨고

노을 진 강과 침침이 돌린 산

안개 강, 침침 봉우리는 누가 그려냈는가.

<하(夏) 1>

년 닢희 밤 싸 두고 반찬으란 잠만 마라

연잎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잠만하지 마라.

달드러라 달드러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靑簑笠(청약잎)은 씨 잇노라 **綠簑依(녹사의)** 가져오나
푸른 색의 도롱이

대섯갓은 씨 잇노라. 도롱이는 가져오느냐.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無心(무심)한 **白鷗(백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쫓아다니는가

무심한 백구는 나를 따르는가? 저를 따르는가?

<하(夏) 2>

마람 남희 바람 나니 **蓬窓(봉창)**이 **서늘코야**

아름 앞에 서늘하구나

마름 앞에 바람이 나니, 봉창이 서늘하구나.

돋드러라 돋드러라

돋 달아라 돋 달아라

년월 바람 명홍소나 가는 대로 빅 시저라
여름

여름 바람이 일정하겠느냐? 가는데로 배를 맡겨 두어라.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北浦 南江(북포 남강)이 어딴 아니 도홀러나

북포구 남여물이 어디 아니 줄올런가?

<하(夏) 3>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잊더허리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은들 어떠하리?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吳江(오강)에 가자 하니 千年 惡濼(천년 노도) 슬플로다

오자서가 참소를 당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사인에게 "내 눈을 빼어 오의 동문에 걸어 씌어 쳐들어와 오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자서의 시체를 가죽 주머니에 넣어 강에 버리게 하니, 노도가 일고 후에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했다는 고시.

오강에 가자고 하니, 오자서의 원인이 슬프도다.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楚江(초강)에 가자 하니 滄腹 忠魂(어복 충혼) 날글세라

초의 굴원이 회왕을 섬겼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먹라스에 빠져 죽은 충혼 / 남을까 걱정되는구나

초강에 가자고 하니, 굴원의 충혼을 축 뉘으라.

<하(夏) 4>

萬柳 綠陰(만류 녹음) **어린 고덕** 一便 苔磯(일편 테기) 奇特(기특)하다

어린 곳에, 영긴 곳에

버들나무의 녹음이 어린 곳에 어물들이 침로 좋구나.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다리애 다든거든 **漁人 雙鯉(어인 정도)** 허물 마라

낙시꾼들이 다투어 건넌

다리에 다다르거든 어부를 건넌다를 허물 마라.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鶴髮 老翁(화발 노옹) 만나거든 **麗澤 康風(늬택 양기)** 效側(효측)하자

순 임금이 뇌택에서 고기를 낚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양보했다는 고시

머리가 센 늙은이를 만나거든 뇌택의 자리양보 본을 밌자.

<하(夏) 5>

긴 날이 저무는 줄 **興(흥)**에 미쳐 **모르도다**

몰랐도다

긴 날이 저무는 줄 흥에 미쳐 몰랐도다.

돌디여라 돌디여라

돋 지어라 돋 지어라

햇대를 두드리고 水調歌(수조가)를 불러 보자

배의 돛대 / <악부> <삼조곡>의 이름으로 수양제가 감도로 행행할 때 스스로 만들었다 함

돛대를 두드리며 수조가를 불러보자.

至句應(지국충) 至句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歎內聲(애내성) 中(중)에 萬古心(만고심)을 귀 뉘 알고

노젓는 소리

어젓차 소리에 만고 수심을 그 누가 알겠는가?

<하(夏) 6>

夕陽(석양)이 도타마는 黃昏(황혼)이 갓잡거다
석양이 좋다만은, 황혼이 가깝도다.

비세여라 비세여라

배 세워라 배 세워라

바회 우회에 구분 길 솔 아리 빛겨 있다

비껴어, 비스듬히

바위 위에 굽은 길은 솔나무 아래 비껴 있다.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鵝樹 鶯聲(적수 앵성)이 곧곧이 들이노다

들리노다

나무에 피꼬리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구나.

<하(夏) 7>

물래 우회 그물 넣고 돛 미터 누워 쉬자

그물 돛 밑에

모래 위에 그물을 넣고, 배자통 돛 밑에서 누워 쉬자.

빅티여라 빅티여라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모기를 잡다 호라 蒼蠅(창송)과 엇더 혼니

모기 밍나고

모기를 잡다 하겠는가. 수파리는 어떠한가?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다만 혼 근심은 轟大夫(성대부) 드르려다

선한의 재정이긴 상송양

다만, 한 근심은 상송양이 들들라.

<하(夏) 8>

밤 스이 風浪(풍랑)을 미리 어이 짐작하리

밤사이 풍랑을 미리 어떻게 짐작하겠는가?

달디여라 달디여라

달 지어라 달 지어라

夜渡 橋舟(야도 환주)를 뉘러서 널렸노고

들 가운데에 있는 내의 건널목엔 빈 배만 매어 있음 / 일렸는가

나뭇터 빈 배를 그 누가 일했던고?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湖邊 幽草(간변 유초)는 眞實(진실)로 여연브다

계곡에 향기로운 풀이 진실로 어여쁘다.

<하(夏) 9>

蟪蛄(악실)을 바라보니 白雲(백운)이 둘러 있다

달팽이 집, 자신의 작은 집을 이름

작은 집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둘러 있구나.

빅뽀려라 빅뽀려라

배 불어라 배 불어라

부들 부채 2각 쥐고 石灘(석경)으로 올라가자

부들로 만든 부채

부들 부채를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漁翁(어옹)이 閑暇(한가)터나 이 거시 구실이라

늙은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로다.

<하(夏) 10>

3. 추사(秋詞)

物外(물외)에 조흔 일이 漁夫 生涯(어부 생애) 아니라나

세상 밖에 좋은 일이 어부의 생애가 아니겠느냐?

빅떠라 빅떠라

배 떠라 배 떠라

漁翁(어옹)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랬더라

그랬더라

늙은 어부를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랬더라.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四時(사시) 興(흥)이 흥가지나 秋江(추강)이 으뜸이라

으뜸이라

사철 흥이 똑같으나 가을강이 그중 으뜸이다.

<추(秋) 1>

水風(수풍)에 고향히 드니 고기마다 솔져 있다

강 혹은 바다를 낚 마을 / 가을이 실져 있다

물나라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실져 있다.

단드려라 단드려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萬頃 澄波(만경 정파)에 畧(략)지 容與(용여) 하자

실도록

한없이 넓고 맑은 파도에 실컷 안겨 보자꾸나.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시간(인간)을 도라보니 먼도록 더욱 도타

별수록

인간(세속)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추(秋) 2>

白雲(백운)이 니러나고 나모 굿티 흐느킨다

흰 구름이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흐느킨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말물의 西湖(서호) | 오 칠물의 東湖(동호) 가자

말물 칠물

말물에 서호로, 칠물엔 동호로 가자꾸나.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白蘋 紅蓼(백빈 홍료)는 곳마다 경이로다

흰 마름 붉은 어귀는 곳마다 경치로다.

<추(秋) 3>

그러기 멧는 빛과 못 보던 뾰 뾰고야

밖의

기러기 떠 있는 밖에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흥려니와 取(취)흔 거시 이 興(흥)이라

낙시질도 하려니와 얻는 것은 흥이로구나.

至菊惠(지국충) 至菊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夕陽(석양)이 보히니 千山(천산)이 金鱗(금수) | 로다

눈이 부시니

석양이 눈부시니 온갖 산이 수 놓은 비단이로다.

<추(秋) 4>

羅綺(로綺)은 순 옥책이 멋치나 **걸넌느니**
희고 큰 고기, 은린 옥책 **걸넌느고**

희고 큰 물고기들이 몇이나 걸넌느고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蘼花(노화)의 불 부러 **굴러야** 구어 노코
풀라시, 가라네서

갈꽃이 불 불어 굴러서 구어 놓고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달병을 **거후리현 박구기에** 브어 다고
기우리어 / 바가지에
질병을 가물여서 바가지에 부어다오.

<추(秋) 5>

넙브람이 고이 부니 드론 **돌기** 도라와다
뚝자리에

엿 바람이 고이 부니, 다른 뚝자리에 돌아왔다.
돌디여라 돌디여라
뚝 지어라 뚝 지어라

曠色(명색)은 나아오되 淸興(청흥)이 머리 인다
어스름은 다가오되, 맑은 흥은 멀었구나.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紅樹 淸江(홍수 청강)이 **솔의디도** 아니 한다
살증이 나지도
단풍잎 맑은 강이 살증나지도 아니한다.

<추(秋) 6>

흰 이슬 빈견느되 불근 돌 **도다** 온다
돋이

흰 이슬 내렸는데 밝은 달이 돌아온다.
빅세여라 빅세여라
배 세워라 배 세워라

鳳凰樓(봉황루) 渺然(묘연)하니 淸光(청광)을 **늘을** 줄고
임금님이 계신 곳, 궁궐 **누구들**

봉황루가 아득하니 맑은 빛을 누굴 줄까?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玉兔(옥토)의 **뽕눈** 藥(약)을 豪客(호객)을 먹이고자
짙는
옥토끼가 짙는 약을 호객에게 먹이고 싶구나.

<추(秋) 7>

乾坤(건곤)이 **재판**인가 이거시 어디메오
재라기

천지가 재판기 뉘인가 이곳이 어디인가?
빅리여라 빅리여라
배 매어라 배 매어라

西風塵(서풍진) 묻 미즈니 **부체** 호야 며엇허리
티끌 또는 흥진의 뜻으로 쓰임 / 부체

서풍에 먼지는 못 오는데, 부채질하여 무엇허리?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드론 말이 얼서시니 **귀 시선** 며엇허리
귀를 씻어서
들은 말이 없었으니 귀를 씻어서 무엇허리.

<추(秋) 8>

웃 우희 **서린**이네 치운 줄을 모를로다
서리가

웃 위에 서리가 오는데 추운 줄을 모르겠구나.
달디여라 달디여라
달 지어라 달 지어라

釣船(조선)이 좁다 하나 浮世(부세)와 얼터하니
낚시배가 좁다고 하나 뜬 세상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넉일도 이리하고 **모뿔**도 이리후자
모래

내일도 이리하고 모래도 이리하자.

<추(秋) 9>

松間 石室(송간 석실)의 가 **曉月(효월)**을 보자 하니
새벽 달

소나무 사이에 있는 석실에 가서 새벽달을 보자 하니
빅브러라 빅브러라
배 불어라 배 불어라

峯山 落葉(공산 낙엽)의 **길**을 엇지 아라 불고
길음

빈 산의 낙엽에 길을 어찌 알아보겠는가.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白雲(백운)이 좃차 오니 **하늘(여리의) 응검고야**
은자의 웃, 이끼의 한 가지 / 무겁구나
흰 구름이 좃차오니 걸친 웃이 무겁구나.

<추(秋) 10>

4. 동사(冬詞)

구름이 거든 후의 흰빙치 **두텁거다**
두텁도다

구름이 걸린 후에 햇빛이 두텁구나.
빅떠라 빅떠라

배 떠라 배 떠라
天地 閉塞(천지 폐쇄)호되 바다흔 依舊(의구)하다
천지가 막혔으나 바다는 그대로구나.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근엄스 물결이 **깊** 편 듯 하여 있다
끝이 없는 **비단**

끝이 없는 물결이 비단을 편 듯하여 있다.

<동(冬) 1>

주매 다스리고 **빳**밥을 **박았느냐**

술과 대, 곧 낚시줄과 낚시대 / 뱃틈에 박는 불고 / 박았느냐
낚시줄과 낚시대를 챙기고, 뱃틈은 박았느냐?

달드러라 달드러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灑湘 洞窟(소상 동정)은 그물이 언다 한다
중국 호남성의 소수와 삼수가 합류되는 소상강과 호남성에 있는 중국 제일의 호수

소상강이며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고 한다.

至甸應(지국충) 至甸應(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이 때에 漁釣(어조)하기 이만흔 터 일도다
이때 고가잡기 이만한 데가 없다.

<동(冬) 2>

여론 갠 고기들히 먼 소히 다 갠느니

알은

열은 것밥에 돌고기들이 먼 못에 다 갠느니

돌드라라 돌드라라

꽃 달아라 꽃 달아라

저근던 날 도흔 제 바람의 나가 보자

바다에

잠깐 날 좋을 때에 바다에 나가 보자.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밧기 꼰 나오면 꼰근 고기 문다 혼다

미끼만

미끼만 좋으면 굶은 고기가 문다고 한다.

<동(동) 3>

간 밤의 눈 갠 後(후)에 景物(경물)이 달랐고야

경치, 풍경 / 달라졌구나

감빔에 눈이 갠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萬頃 琉璃(만경 우리) 뒤희는 千疊 玉山(천첩 옥산)

앞에는 유리 바다, 뒤에는 천첩 흰 산이로다.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仙界(선계)나 佛界(불계)나 人間(인간)이 아니로다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의 것은 아니로다.

<동(동) 4>

금을 낚시 니저 두고 氷鏡을 두드린다

뱃전, 배의 가장자리

그물 낚시를 잊어두고 배의 가장자리를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이어라

앞갯벌 건너고자 먼 번이나 海어 본고

앞 갯벌을 海어라

앞 갯벌을 건너고자 몇 번이나 海어 보았는가.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無端(무단) 혼 된 바람이 항해 아니 부러 올라

무단한 된 바람이 행어 아니 불어올까?

<동(동) 5>

자리 가는 가마괴 먼 날치 디나거니

자리 가는

자리가는 까마귀 몇 마리나 지나갔느냐

돌디여라 돌디여라

꽃 지어라 꽃 지어라

알 길히 어두우니 霧靄(모설)이 仄仄(적적)다

자욱하다

알길이 어두우니 저녁눈이 자욱하다.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鰲鰲池(아인자)를 뉘 떠서 草木樨(조목참)을 싹들린고

당나라 때에 오원제가 회소에서 난을 일으키매, 이소가 설야에 채성을 칠 때 오리떼를 놀라게 해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이용해 성을 함락시켰다는 못 / 싹들던가

아입지를 누가 쳐서 부끄러움을 씻었던가.

<동(동) 6>

舟崖 翠壁(단애 취벽)이 靄靄(취병) 곧터 靄靄(취병)

돌렸는데

붉은 암벽, 푸른 암벽이 그림병풍 같이 둘러져 있는데

빅세여라 빅세여라

배 세워라 배 세워라

巨口 鱗鱗(거구 세린)을 낚거나 문 낚거나

금린어, 쏘가리 낚거나

큰 주둥이 가는 비늘을 지닌 금린어를 낚으나? 못 낚으나?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孤舟 蓑笠(고주 사립)에 興(흥) 제워 안갓노라

외로운 배 사립에 흥겨워 안갓노라.

<동(동) 7>

몹그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淸淸(청청)고

씩씩한가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이 이렇게 싹싹한가.

빅미여라 빅미여라

배 태어라 배 태어라

머흔 구름 恨(한)티 마라 世上(세상)을 그리온다

힘한 구름 한하지 마라, 세상을 가려준다.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波浪聲(파랑성)을 厭(염)티 마라 塵喧(진원)을 厭(염)도다

막는구나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타골과 시끄러움을 막는도다.

<동(동) 8>

滄州 滄淵(창주 오도)를 네브터 날린더라

은자가 사는 강호

은자가 사는 강호의 도를 예부터 일했더라.

닫디여라 닫디여라

달 지어라 달 지어라

七里(칠리) 어흘 羊皮(양피) 옷은 그 엇더하니리고

업자통이 양피옷을 입고 칠리탄에서 낚시질을 했다던 고사

칠리탄에서 양피옷을 입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려나?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三千六百(삼천육백) 낚시질은 손 고븐 제 엇더턴고

태공망 여상이 위수빈에서 10년 동안 세월을 낚으며 기다렸다는 고사

십년간 낚시질은 손잡아 볼 때는 어떠한가.

<동(동) 9>

어와 저머러 간다 魚食(어식)이 말당로다

연회를 마치고 쉬는 일 / 마땅하도다

어와 저물어간다. 잔치를 끝내고 쉬는 것이 마땅하다.

빅뿔여라 빅뿔여라

배 불어라 배 불어라

그는 눈 브린 길 불근 곳 糞(분)티 흥치며 거러 가서

흙이진

가는 눈을 부린 길에 붉은 꽃이 흙이진 데 흥치며 걸어가서

至甸惠(지국충) 至甸惠(지국충) 於思臥(어사와)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雪月(설월)이 西峯(서봉)의 넘도록 松窓(송창)을 비겨 잇자

눈 속에 달이 서산에 넘도록 창에 소나무를 비겨 잇자.

<동(동) 10>